

재야운동가 출신 첫 입법부 수장

후반기 국회의장 임 채 정 씨

17대 국회 후반기 운영을 책임질 임채정(65·사진) 신임 국회의장은 나주 출신으로 지난 81년 정래혁 10대 국회의장 이후 25년 만에 전남에서 배출한 입법부 수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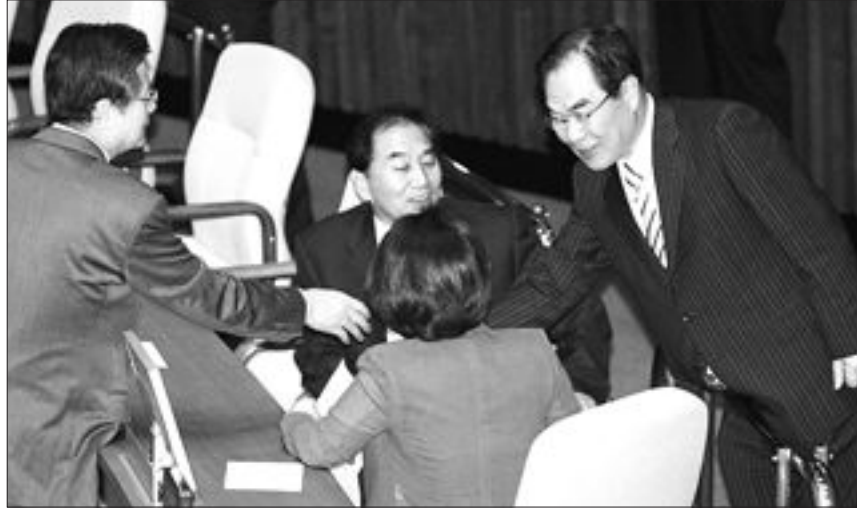
광주 서중, 광주일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임채정 의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재야 운동에 매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다선이 기준이었던 기존의 국회의장 선출 관행에도 불구하고 4선에 불과한 임채정 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된 것은 합리적인 리더십과 여야를 넘나드는 특유의 정치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임채정 의장은 우리당이 계파 대립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당의 '부름'을 받고 위기관리에 나서 '구원투수'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다.

지난해 1월 당 지도부가 국가보안법 등 주요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을 때 거의 모든 계파의 추대를 받아 임시의장직을 맡은 것은 그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임 의장이 정계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민주화 운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7년. 1975년 자유언론수호투쟁으로 해직된 이후 민통련 사무처장 등 재야운동에 투신한 임 의장은 13대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 평민당에 입당했다.



19일 국회에서 17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임채정 의장이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다선 선출 관행 깨고... 전남 출신으로 25년만에 리더십·정세판단 감각 탁월 우리당 '구원투수'

그러나 당내 실세그룹인 동교동계와 소원해 당직 운이 그다지 없었던 임 의장은 1997년 탁월한 정세판단 감각을 인정받아 국회의 정세분석위원장을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2002년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참여정부 각종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산파역을 맡았다.

부인 기영남(64)씨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으며 광주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한달에 한번 광주를 방문한

다. 임 의장의 부친은 전남대 법대 학장을 지낸 임광택씨로 지난 2002년 작고했다.

▲나주 ▲고려대 법대 ▲동아일보 기자 ▲14,15,16,17대 국회의원 ▲국민회의 정세분석실장 ▲민주당 국가경영전략연구소장 ▲한중의원교류협회장 ▲민주당 정책선거특별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열린우리당 의장 ▲우리당 열린정책 연구원장.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7대 국회 최고령...DJ와 '호형호제'

이 용 희 국회부의장



1960년 5대 민의원 선거에 도전한 정치 이력이 말해듯 17대 국회 최고령의 4선 의원.

45년을 넘는 정치역정에서 총선과 지방선거를 포함해 모두 13번 선출직 공직의 문을 두드렸으나, 8번 고배를 마시고 5번(도의원 1번, 9,10,12,17대 국회의원) 당선되는 등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정치인. 오랜 정치활동과 탄탄한 지역구 관리 덕분에 여당이 참패한 5·31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보은, 옥천, 영동에서 군수 3명을 모두 당선시켜 새삼 주목을 받았다.

1971년 대선 때 신민당 선전국장으로 당시 김대중(DJ)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면서 DJ와 인연을 맺었고, 유신 시절 DJ와 함께 내외문제연구소를 만들어 반독재 투쟁을 벌이는 등 DJ를 '형님'으로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부인 유정순(72)씨와 3남 2녀.

▲충북 옥천(75) ▲신민당 사무총장 ▲국민회의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열린우리당 고문단장

추진력·조정능력 뛰어난 실물 경제통

이 상 득 국회부의장



한나라당내 대표적 실물 경제통으로 통하는 전문경영인 출신의 5선 의원.

지난 1988년 13대 국회때 코오롱상사 사장을 그만 두고 민정당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민자당과 신한국당, 한나라당에서 사무총장과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등 당3역은 물론 최고위원까지 지냈고, 국회 재정, 운영위원장 등 주요 국회직도 두루 역임했다.

가난했던 유정년기에 동생인 이명박 서울시장과 함께 역경속에서 고학했고, 평사원으로 대기업에 입사해 최고경영자(CEO)에 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답게 추진력과 조정 능력이 돋보인다는 지적이다.

▲경북 포항(71세) ▲서울 상대 ▲코오롱상사 사장 ▲민자당 제2조정위원장 ▲신한국당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위원장 ▲한나라당 원내총무 ▲한나라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13,14,15,16,17대 의원

'미사일 암초'...DJ 방북 어찌되나

DJ측, 발사 여부따라 국내외 여론 등 부담 '예의주시' 李통일, DJ 방문 방북 협상과정·미사일 문제 등 논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이날 말 방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초 4월 성사를 목표로 추진했다가 '5·31 지방선거'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면서 6월로 미루는 결단을 내렸던 DJ는 이번에는 미사일이라는 예기치 않은 '돌발변수'에 봉착, 방북 계획에 다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쏜다면 북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극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그의 운신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북북은 지난 4월말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과정에서 DJ의 6월 방북에 사실상 합의한 데 이어 지난달 가진 두 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 날짜를 오는 27~30일로, 경로를 육로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의견교환'을 봤다.

남북은 방북단 규모 등 구체적인 사안을 확정짓기 위해 최근 광주에서 열린 6·15 축전 기간 두 차례 접촉을 가졌고 현재 우리가 제시한 방북안에 대해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처럼 방북을 위한 접촉이 쉽게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서 북측이 DJ 방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측의 답변은 이번 미사일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일단락돼야 남측에 전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만약 쓰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DJ의 방북은 지금까지 추진돼 오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예정대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실제 미사일을 쏜다면 그의 방북

에는 북한의 태도와 국내 여론, 주변국의 움직임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면서 논란거리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우선 북측이 당초 추진했던 대로 이날 말 방북을 허용할 지부터 불투명해진다. 미사일 발사라는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남측 인사와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북측이 방북을 허용한다 해도 DJ가 선택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외에서 그의 방북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동교동 자택을 방문, DJ와 만났는데 이어 20일 오후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DJ를 예방할 예정이다. 이는 '돌발변수'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 잠정합의된 DJ의 방북 예정 일자가 다가오면서 DJ측과 정부, 미국측이 연쇄적으로 방북문제를 긴밀히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장관과 DJ간 만남에서는 6·15 행사 때 있었던 DJ 방북을 위한 협상 경과를 물론 최근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이 오고갔을 것으로 관측되며 버시바우 대사와의 만남에서는 북핵 6자회담, 북미관계, 한반도정세 등은 물론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방선거에 이어 미사일이라는 돌발변수를 앞에 둔 DJ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그리고 그의 방북에 1차적 열쇠를 쥐고 있는 북측이 어떤 태도를 보일 지 주목된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남·북 노부부의 눈물

제14차 이산가족 1차 상봉단의 단체상봉행사가 열린 19일 오후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북측 남편 채두석씨가 남측 아내 강정순씨를 다독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14차 이산가족 1차 상봉단의 단체상봉행사가 열린 19일 오후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북측 남편 채두석씨가 남측 아내 강정순씨를 다독이고 있다. /연합뉴스

방북 선물용 논란 '청자' 출고 않는다

강진군 '방북 이후 주문자에 넘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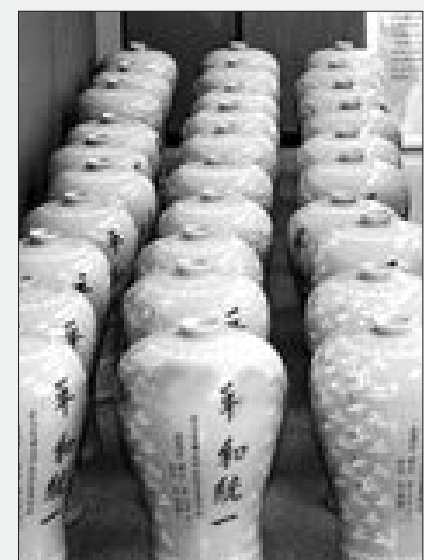
강진군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선물용 논란이 일고 있는 '청자'를 방북전까지는 출고하지 않기로 했다.

강진군은 19일 "김 전 대통령측의 요청에 따라 청자제작이 이미 완료됐지만 그대로 보관한 뒤 방북 이후에 주문자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청자가 김 전 대통령의 북측 고위 인사의 방북 선물용으로 제작됐다는 향간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문제의 청자는 지난 3월 중순께 김 전 대통령의 가까운 인척인 이모(78)씨로부터 방북에 쓸 것이라며 제작 의뢰를 받아 개당 65만원씩, 30점이 제작됐다.

제작된 청자는 국보 68호를 그대로 재현한 높이 50cm 가량의 '청자상감 운화 문매병' 등 30점이며 '평화통일' 글씨 옆에 '재북에국지사후손묘기념'과 '후광 김대중', '수송 이희호' 등의 글이 김 전 대통령 친필로 새겨져 있어 방북 선물용 논란이 일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꼭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경산강남교사, 영양교사 임용시험을 구분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해결하려면 우선 다양하고 심도있는 학습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실생활 수 있는 시스템 및 학생부담을 지면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바로 우리의 최고 강사진이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국내 유일의 교육전문가,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아니라 수년간 수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한 높은 합격률과 인성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합격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합격, 교원임용시험은 교수진이 최고야!"

여름방학 특강 개강 7월 1일(현재 예약접수중)

▶ 교육학/과내영 선생	▶ 국어/최병해 교수	▶ 국어교육론/미운용 교수	▶ 영어/송옥 교수
▶ 수학/임대성 교수	▶ 과학교육론/정영민 교수	▶ 물리/정영민 교수	▶ 화학/이영철 교수
▶ 생물/김지숙 교수	▶ 지구과학/박영순 교수	▶ 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	▶ 일반사회/김형수 교수
▶ 체육태권도/김용호 교수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미술/김성희 교수	▶ 음악/박성진 교수
▶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	▶ 초등교육과정/위재권 선생	전국 최강의 강사진만을 모았습니다.	

수강문의 :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엘빙

자연의 신선한 공기와 향기
웅장하고 섬세한 조형물!

생활 속 웰빙문화실현!
전문가가 시공하는 **실내정원**

정원구성용품 바위, 울타리, 물레방아, 분수, 개울, 안개분수, LED조명

몰딩과 조각 TEL062)511-8280(광주시 중흥동 구시청-대이름 사거리)

2007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어름방학 문제풀이 대특강

2006년 임용고시 최고의 책들을 자랑하는 교수진!!

교육학 유길준 교수 개강 7월 9일(일) 10:00~19:00	국어 유광재 교수 개강 7월 8일(토) 10:00~18:00	영어 이현 교수 개강 7월 6일(화) 10:00~17:00
--	---	--

직업교육 류호정 교수 개강 7월 8일(토) 13:00~19:00	간호학 신희원 교수 개강 7월 7일(금) 10:00~17: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 개강 7월 4일(화) 15:00~21:00	초등교육 배제민 교수 개강 7월 8일(토) 13:00~19:00
---	--	---	---

선생님을 향한 당신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현대교원임용고시학원

www.hgosi.net
전남어고 앞 222-6790

어름방학 대특강

개강 7월 3일

주간/야간반 운영
6월 수시 접수중

인터넷 모의고사 무료
본인 성적 확인하고 실답을 해보면 보다 더 정확한 상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교재

공무원시험 새로운 무등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수많은 공무원이 무등출신입니다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hanbitgosi.co.kr

축구에 월드컵이 있다면 합격의 영광무인 한빛공무원 학원이 있습니다.

어름방학 7월 9일 공무원 대특강

두배 빠른 합격시스템 = 이론정리+문제풀이+동시개강

개강 : 7월 28일 / 2차 : 7월 31일 마감입학 예약접수(주/야간반-종합/과내영 모집)

한빛공무원학원

전남대 후문앞 (서울고시학원 바로 앞) ☎234-0234